

2월 10일
재의 수요일

죽기 위해 나섰다

마태복음 2:1-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옆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11절).

찬송: 116장(동방에서 박사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언젠가 죽습니다. 살다가 죽는 것이지 죽기 위해 태어난 것도, 죽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살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죽을 운명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한 생애를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동방에서 먼 길을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중 몰약은 어떤 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하기에 너무 이상합니다. 몰약은 시신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장례용품입니다. 죽으러 태어나신 주님 탄생의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그야말로 현자의 선물인 셈입니다.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은 것도 탄생의 목적에 잘 맞아떨어집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일컬어지듯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를 암시하는 장치가 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요 6:51).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떡으로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습니다.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한 요셉 내외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마리아가 출산하자 아기를 구유에 눕혔습니다. 귀하신 분을 짐승의 여물통에 모신 것도 그가 인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퍼즐의 한 조각이라 하겠습니다. 천사가 주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그리스도 됨의 표적입니다. 그분은 못 생명의 밤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은 철두철미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탄생의 결과라고 말하기보다 그가 죽을 수 있도록 탄생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천적
독상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그분의 죽음에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셨는지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어떻게 지낼 지 계획해 보세요.